



Read the full book on: [10.1787/eag-2018-en](https://doi.org/10.1787/eag-2018-en)

2018년도 교육부문 개요 OECD 지표

한국어 개요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의 평등성에 미치는 영향은 생애 전반에 걸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에 최종학력의 현저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가진 사람은 조기아동교육 프로그램 참여, 고등학교 졸업 및 그 이상의 높은 교육 수준으로 진학할 가능성은 대학 이상의 최종학력을 가진 부모가 한 명 이상인 사람보다 낮다. 부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25세-64세 중 2/3가 자신들의 부모보다는 높은 최종 교육수준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들 중의 대부분은 직업고등학교의 학력으로 그치게 된다. 대학 수준의 교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OECD 국가 전체에서 대학교육을 하지 않은 부모를 가진 18세-24세는 해당 연령집단에서 6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47%만이 대학 학부, 장기 학사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새롭게 입학했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성은 노동시장에도 반영된다. 최종학력으로 고등학교만 있는 사람은 대학이상의 최종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고용될 확률도 낮고 소득도 65%에 불과하다.

성별격차는 교육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관련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에서 고등학교 학년유급생의 60%는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낮다. 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큰 비율로 고등학교 수준의 과정을 졸업하고 있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대학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2017년 OECD 국가 전체에서 25세-34세 사이의 남성 중 평균적으로 38%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반면에, 동일한 연령대의 여성 중 50%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에서 성별격차는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최종 교육학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에서 나쁜 결과를 보이고 있다. OECD 전체 평균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 여성의 80%가 고용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교육을 받은 청년 남성의 89%가 고용된 수치와 비교된다. 이러한 차이는 최종학력이 낮을 수록 더 커지게 된다. 대학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동일한 학력의 남성에 비해서 그 소득이 OECD 국가 전체 평균적으로 26% 적다. 이러한 임금 차이는 대학교육 수준에서 고소득/저소득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전공선택에 있어서 성별격차를 반영하기도 있지만, 또한 여성은 임금상승을 지체시킬 수 있는 경제비활동 또는 실업의 기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에서도 비롯된다.

외국태생 성인과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은 교육에 참여하고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관련 자료가 있는 OECD 국가들에서 이주민 1세대 및 2세대는 대학 학부 또는 장기 학사학위 프로그램에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비중이 낮다. 26세 이상에 연령으로 해당 국가에 정착한 외국태생의 성인은 해당

정착국가 출생자나 25세 이전에 정착한 외국태생 보다 공식 및/또는 비공식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는 정착국가의 교육제도와 언어에 덜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은 외국태생의 성인의 고용률이 동일한 교육수준의 정착국가 출생자보다 낮지만, 최종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추이는 대학 교육을 받은 외국태생의 성인이 정착국에서 자신들의 교육과 경험을 인정받은 데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고용주들은 최종학력 수준이 낮은 외국태생 성인의 낮은 임금 요구에 대해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태생의 성인은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NEET, 니트족)가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15세-29세의 외국태생 중의 약 18%가 니트족인 반면에, 정착국 출생자 중에서는 13%가 니트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취학전 교육의 총 예산에서 민간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학생 1인당 실질지출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및 그 이후 대학 이외 수준까지에서는 5%, 대학 수준에서는 11%가 각각 증가했다. 교육기관에는 대부분 여전히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및 그 이후 대학 이외 교육에 대한 예산의 90%와 대학교육에 대한 예산의 66%는 정부 예산에서 비롯되었다. 대학교육의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가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국가들은 이러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금 수준이 높은 국가의 대학생 75% 이상이 이러한 유형의 학자금 대출이나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조기아동교육에 참여하는 3세-5세들이 증가함에 따라, 취학전 교육에 대한 공적투자도 역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조기아동교육의 총 예산 83%를 공적투자가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러한 공적투자의 비중은 관련 자료가 있는 국가 전체에 있어서 4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전체 평균적으로 취학전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아동 3명 중 1명이 사립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으며, 이는 대학 외의 어떠한 교육 수준에서도 사립 교육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다.

교직은 여전히 성별 불균형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취학 전 교육의 교사는 거의 대부분 여성이지만, 대학 강사/교수의 2명 중 1명 미만이 여성이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러한 성별 격차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확대되었으며, 대학교 수준에서는 줄어들었다. 남자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하는 데에는 특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여자교사의 평균적인 실제 임금은 대학 교육을 받은 다른 상근직 여성과 유사하거나 높은 반면에, 초중고교 남자교사의 수입은 대학 교육을 받은 다른 상근직 남성 수입의 77%에서 88% 사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관련 자료가 있는 OECD 국가에서 전체 평균적으로 15년 경험에 공통적인 교사자격증을 가진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법정임금은 5%~8%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의 교장이 되려고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되어 있다. 학교교장의 실질임금은 평교사 임금의 최소 35% 이상이며, 기타 대학교육기관의 직원들의 평균 수입보다 최소 20% 이상 높다.

기타 내용

교육 참여의 지역별 차이는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가 내 지역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조기아동교육의 입학률과 3세미만의 아동 육아에서 관찰된다.

관련 자료가 있는 OECD 국가들의 절반에서, 낙후되거나 도서/산간벽지에 근무하는 학교 교장 및 교사에 관련된 추가적인 근무수당을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육지침의 구성 방식에 대한 결정은 학교 수준에서 대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획 및 구조, 인사 관리, 재원과 관련된 결정은 교육당국의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doi: 10.1787/eag-2018-en